

공간의 미학: 스티븐스의 「C 글자의 희극인」

김 영 일*

차 례

- I. 크리스핀의 정체
- II.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 III. 가정이라는 공간

I. 크리스핀의 정체

스티븐스(Wallace Stevens) 시에서 상상력과 실재(reality)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상상력은 실재를 벗어나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실재는 상상력과 관계를 고수하지 않을 때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 “실재는 인생이고 인생은 사회와 상상력과 실재”(reality is life and life is society and the imagination and reality, *NA* 28)이기 때문에 상상력과 실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간에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스티븐스가 실재와 상상력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를 장시라는 장르 속에서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펼쳤다는 면에서 그 의미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스티븐스는 1922년 친구 해리엇 먼로우(Harriet Monroe)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시에 대해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오랜 시간의 관심”(prolonged attention to a single subject)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심에서 “다양한 풍취”(all manner of

* 경인여자대학 관광영어과 강사

주소: (158-0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18동 305호

전화: 032-540-0204, 휴대전화: 011-768-0757, 이메일: cloudhill@kic.ac.kr

flavors, L 230)가 나온다고 자신의 장시론을 역설한다. 물론 스티븐스의 장시는 장시의 전통 속에서 고찰해볼 때 스펜서(Edmund Spenser)와 밀턴(John Milton)의 그것들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하는 분량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장시는 그 속에 하나의 긴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스티븐스의 장시는 장황한 배경 설정과 그 배경을 묘사하는 제목은 없지만 긴장감을 지닌 정신적 탐색의 여정이 밀도 있게 그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장시 「C 글자의 희극인」(“The Comedian as the Letter C” - 이하 「희극인」으로 약칭함)은 스티븐스의 초기 시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크리스핀(Crispin)이라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흥미로운 제목에서 보여 지듯이 크리스핀이라는 이름은 스티븐스가 프랑스의 전형적인 희극-하인(comic-valet)이라는 역할에서 따온 것이다(O'Connor 139). C 글자의 희극인을 의미하는 주인공인 크리스핀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자 낭만주의자이다. 그를 희극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진짜 희극 배우라서가 아니라 인생을 긍정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주안점을 두어 필자는 이 논문에서 크리스핀이 자아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상상력과 실재가 그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탐구하고자 한다.

주인공 크리스핀이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공간의 의미는 중요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로버트 팩(Robert Pack)은 사람과 공간의 합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상상력과 실재의 통합으로 풀이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만약에 실재의 근원이 장소, 세계이고 상상력의 근원이 사람,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째서 스티븐스에게 사람과 장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상상력과 실재의 통합이기 때문이다.

If we see that the source of reality is place, the world, and that the source of imagination is person, the poet, then we can understand why it is so important to Stevens to achieve the

unity of person and place, for it is also the unity of imagination and reality. (81)

공간과 세계의 근원을 실제로 보고 사람과 시인의 근원을 상상력으로 파악하는 까닭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항상 변화하는 실재의 실체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양자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장소의 통합이 스티븐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에 게 시는 신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는 시대에 그 믿음을 대신하는 “인간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언문”(the statement of a relation between a man and the world, *OP* 172)이며 시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사람 사이의 중재자”(the intermediary between people and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OP* 162)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 스티븐스는 시 속에서 사람과 세계에 대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주의자인 크리스핀의 여행은 유럽이라는 구세계에서 아메리카라는 신세계로의 지리적이면서 철학적인 사상의 주유(周游)이다. 아울러 그의 여행은 그가 배우고, 쓰고 싶어 하는 것에 부합하는 미학적인 신조의 창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어 일종의 우화라고 할 수 있는 시에 수축시키는 힘(deflationary force)을 더 보태고 있다(Sharpe 98). 스티븐스는 「희극인」을 결코 자서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모오스(Samuel French Morse)가 자서전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듯이(83), 이 작품에는 “스티븐스의 젊은 시적 자아”(Eleanor Cook 73)의 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II.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여행의 모티프를 통해서 전개되는 이 시는 크리스핀이 사계절에 걸쳐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 멕시코의 유카탄(Yucatan), 그리고 아메리카의 캐롤라이나(Carolina)를 여행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인으로서 크리스핀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ding an sich)(CP 29)을 찾아서 겨울에 프랑스를 떠나는 그의 여행의 동기이다.

그의 순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형태로든 크리스핀의 마음속에 그것은 자리잡고 있다.
결국은 하늘과 비루한 지성으로부터
동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성이 우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는가?

What was the purpose of his pilgrimage,
Whatever shape it took in Crispin's mind,
If not, when all is said, to drive away
The shadow of his fellows from the skies,
And, from their stale intelligence released,
To make a new intelligence prevail? (CP 37)

그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진부하고 케케묵은 그 사회의 낡은 지성에 대한 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스티븐스가 “시는 지성에 거의 실패 없이 저항해야한다”(Poetry must resist the intelligence almost successfully, OP 171)고 말했을 때의 지성의 의미는 기존의 신화와 질서 그리고 틀이라고 할 수 있기에 주인공은 여기서도 그러한 전통적인 잘못된 개념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성, 즉 정신을 찾아 나선다.

크리스핀은 제 1부 “상상력이 없는 세계”(The World without Imagination)에서 “인간은 그의 토양에 대한 지성이다”(Man is the intelligence of his soil, CP 27)라고 천명하여 인간을 그가 살아가는 환경의 지배자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제 4부에서 그는 이러한 선언을 바꾸어 “그의 토양이 인간의 지성이다”(His soil is man's intelligence, CP 36)라고 말하여 인간의 환경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정신이라는 논리를 펴낸다.

한편, 크리스핀이 상상력 부재의 현실을 떠나 찾아 나선 곳이 바다다.

크리스핀은 바다에서
 그 좋은 시절에, 한 점 의혹을 만들었다.
 젤라틴과 스커트와 마을의 딸기에 길들여져 있던 눈,
 이발사의 눈, 땅과 소박한 채소밭의 눈,
 검소한 누비이불의 눈, 크리스핀의 그 눈이
 살구가 아니라, 돌고래에게 쫓겼다.
 그리고 조용한 돌고래들은 주둥이를
 파도 속에 쑤셔 박았는데, 파도는 콧수염이었고,
 불가해한 세계의 불가해한 털이었다.

Crispin at sea
 Created, in his day, a touch of doubt.
 An eye most apt in gelatines and jupes,
 Berries of villages, a barber's eye,
 An eye of land, of simple salad-beds,
 Of honest quilts, the eye of Crispin, hung
 On porpoises, instead of apricots,
 And on silent porpoises, whose snouts
 Dibbled in waves that were mustachios.
 Inscrutable hair in an inscrutable world. (CP 27)

크리스핀이 “바다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주 소박하고 사소한 것에 익숙해져 있던 그가 바다라는 “불가해한 세계”에 의해 절망적으로 압도된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아의 신화”(mythology of self, CP 28)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에 낯설어 할 수 밖에 없다. 스스로를 “달팽이들의 / 소크라테스, 배들의 음악가, 원리 / 법”(the Socrates / of snails, musician of pears, principium / And lex, CP 27)으로 여기는 그는 “바다에 관한 교사”(preceptor to the sea, CP 27)가 되려고 여행을 하는 “무능한 지도자”(incompeted pedagogue, CP 27)임이 드러난다. 크리스핀이 스스로를 희화화한 이러한 모습은 낭만주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웅이나 시

인으로서의 탐구자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여행을 통한 탐구의 과정은 전통적인 법을 따르면서도 그가 입고 있는 망토는 중국제이고, 모자는 스페인 제품으로(*CP 28*) 전통과는 이질적인 면을 보이는 “혼합물”(composite, Riddel 95)의 우스꽝스런 모습이다. 이렇게 스티븐스가 낭만적 전통을 패러디하면서 보여주는 주인공의 묘사는 진지함보다는 유희적이며, 아이러니컬한 면이 강하다. 이렇게 통일성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화자가 찾아 나선 여행지는 인간의 거주지인 육지가 아니라 바다이다. 크리스핀은 바다라는 실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소리로 축소됨을 느낀다.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던 삶은
그의 귀에 울리는 하나의 소리로 축소되었다.
어디에나 있는 충격, 찰싹거림과 한숨,
그의 지휘봉의 휘두름을 벗어난 다성음(多聲音)으로,

The whole life that still remained in him
Dwindled to one sound strumming in his ear,
Ubiquitous concussion, slap and sigh,
Polyphony beyond his baton's thrust. (*CP 28*)

그의 전 존재는 지휘봉의 지시를 벗어난 바다의 그 엄청난 소리 속에 파묻혀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이처럼 크리스핀은 바다에서 존재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의 이해력을 초월하고 있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충되는 지성의 무의미를 체험한다.

크리스핀에게 “물의 현실주의자”(watery realist, *CP 28*)로의 바다는 그의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실재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기존의 신화 속에서 바다의 신(神)인 트라이톤(Triton)의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새로운 신화가 필요한 지금 바다의 신은 “용해되어”(dissolved, *CP 28*) 더 이상 낡은 신화로 지탱할 수 없는 낯선 세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 트라이톤은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희미한, 추억의 몸짓을 제외하고
그를 만들었던 그것으로 단순화 되었다
그것은 파도 속에서 팔과 어깨 같았다

.....
그렇게 늙은 크리스핀은 용해되었다.
폭풍 속에서 하인은 제거되었다.

... Triton uncomplicated with that
Which made him Triton, nothing left of him,
Except in faint, memorial gesturing,
That were like arms and shoulders in the waves,
.....
Just so an ancient Crispin was dissolved.
The valet in the tempest was annulled. (CP 28-29)

팔과 어깨만 남아 넘실거리는 파도는 그 오름과 하강의 율동으로 존재한다. 더 이상 바다가 과거의 트라이톤이 아니듯이 이제 옛날의 크리스핀은 용해되어 버렸고, 하인으로서 그는 폭풍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기존의 낡은 신화에 매어 있던 옛날의 크리스핀은 새로운 실재의 바다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깨달음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새롭게 재탄생하고자 하는 열망의 소산이다.

바다는 육지뿐만 아니라 자아도 절단한다.
여기 실재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크리스핀은 바라보았고 크리스핀은 새로와졌다.
상상력은, 자두의 시에서
하나의 거대하고, 지배적인, 마지막 음조의
엄정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

..... The sea
Severs not only lands but also selves.

Here was no help before reality.
 Crispin beheld and Crispin was made new.
 The imagination, here, could not evade,
 In poems of plums, the strict austerity
 Of one vast, subjugating, final tone. (*CP 29-30*)

바다라는 거대한 실체 앞에서 크리스핀은 그 세계를 바라보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는 통통하게 살이 찼다가 시들어서 사라져버리는 자두와는 달리 근원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볼 수 있다. 상상력은 실재를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체에 똑바로 맞서야 “진부한” 선입견 없이 실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거대하고, 지배적인, 마지막 음조” 속에서 바다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제 크리스핀은 비극적인 인식에 도달했다. 그는 자아가 죽음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의 무심한 광대함 속에서도 절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안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무지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가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자아의 신화”(new mythology of self, *CP 28*)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단순히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의식하는 정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인생의 지식에 관해 이미 그에게 있었던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는 눈을 떴다. “그는 바다에 의해 선명해졌고 / 빛나는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이었다”(He was a man made vivid by the sea, / A man came out of luminous traversing, *CP 30*). 바다라는 실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는 새로워졌다. 그래서 시인은 “이 험란하고, 돌발적인 멋진 차림새는 무엇인가? / 어떤 신속한 파괴에서 그것이 생겨났는가?”(What was this gaudy, gusty panoply? / out of what swift destruction did it spring?, *CP 30*)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질문을 하고 있다.

유카탄에서 탐험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크리스핀이 폭풍우가 몰아치자 성당이라는 공간으로 피신한다.

....이곳으로 크리스핀은 도망왔다.
 주석가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고상한 생각을 알고 있는
이 타고난 운명의 감식가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대성당에서 무릎을 꿇었다.

...Crispin, here, took flight.
An annotator has his scruples, too.
He knelt in the cathedral with the rest,
This connoisseur of elemental fate,
Aware of exquisite thought. (CP 32)

그는 성당에서 무한한 실재의 “본질적 사실”(quintessential fact)인 “힘의 범위”(the span / of force, CP 33)를 느낀다. 여기에서 성당은 크리스핀 개인의 종교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실재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그가 그곳을 찾은 것은 개인의 정신적인 위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으로서 실재에 맞서 생존을 계속해야 하므로 새로운 자아를 찾기에 알맞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핀이 살아가는 공간은 엄연한 현실이다.

폭풍은

그가 배운 것보다 더 거친 뭔가를 주장하는
많은 선언들 중의 하나였다.
추운 밤마다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혹은 창틀 위로 지나가는
한 여름의 작품인 열기를 느끼면서.

The storm was one
Of many proclamations of the kind,
Proclaiming something harsher than he learned
From hearing signboards whimper in cold nights
Or seeing the midsummer artifice
Of heat upon his pane. (CP 32-33)

크리스핀은 흔들리는 간판과 뜨거운 창틀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ukenick 52). 실재의 힘에 비하면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본질적인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사소한 “울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크리스핀의 애착은 캐롤라이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크리스핀의 공간에 대한 감정은 리들(Riddel)이 “크리스핀의 지역적인 미학은 어떤 의미에서 실존적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따르는 원론적이고 순수한 의식으로의 회귀이다. 이름 없는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는 문자 그대로 사물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로 ... 시작한다”(Crispin's regional aesthetic is in one sense existential, in another a return to the primitive, innocent, consciousness with its deference to the “ding an sich.” Beginning again, in a world unnamed, he begins ... with the word that literally contains the thing, Riddle 99)고 주장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실재와의 통합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을 존재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가 살아가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공간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사물 그대로의 모습인 실재와 그 실재로의 회귀야말로 크리스핀이 원하는 통합의 양상이다. 이러한 공간과 사람의 조화로운 융화는 실재와 상상력의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며 더 나아가 “최상의 허구”(supreme fiction)를 위한 통합의 결정체로 발전하게 된다는 데에 그 참뜻이 있다. “최상의 허구”는 시인이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한 시들이 순간적이고 변화하는 실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허구인줄 알면서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기꺼이 믿어야만 하는 시인의 창조물이다. 또한 “최상의 허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시인의 임무이자 시의 목표이다. 왜냐하면 최상의 허구 없이는 “우리는 삶을 생각 할 수 없기”(we are unable to conceive of life, NA 31) 때문이다.

한편 이국적인 유카탄과는 달리 평범한 땅인 캐롤라이너에서 크리스핀이 추구하는 것은 그 땅과의 접촉을 통한 “행복한 교접”이다. 이러한 결합이 결혼 이미지인데 이 결혼 비유는 스티븐스 시에서 중요한 것이다.

교접, 그 자신과 환경사이의
 행복한 교접,
 그것은 중요 동기이자 최초의 기쁨이었다.
 그를 위하여, 그러나 결코 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The liaison, the blissful liaison,
 Between himself and his environment,
 Which was, and if, chief motive, first delight.
 For him, and not for him alone. (CP 34)

이제 크리스핀이 캐롤라이너에서 “호젓한 신부”(sequestered bride, CP 34)가 아니라 평범한 “소녀 감독 교사”(duenna, CP 42)와의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국적인 유카탄에서 이국적으로 육감적이었던 그가 여기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평범한 땅에서 다시 거듭난 크리스핀에게 그 땅은 회피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기쁨의 대상인 공간이 된다.

..... 그의 코를 들어올려
 그는 썩은 송진과, 축축한 목재의
 고약한 냄새와, 창고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밧줄에서 풍겨오는 냄새,
 부패 더미들, 그리고 그의 조잡한 미학을
 몰아내게 도움을 준 모든 지독한 악취들을 들이마셨다.
 그는 육욕주의자 처럼 악취를 맛보았다.
 그는 부두 주위의 늪지대와,
 서행하는 철도의 박차, 썩은 울타리,
 비상한 2학년 교과 과정을 주목했다.
 그것은 정화시켰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가 결코 알 수 없었는지를 그에게 알게 해주었다.

..... Tilting up his nose,
He inhaled the rancid rosin, burly smells
Of dampened lumber, emanations blown
From warehouse doors, the gustiness of ropes,
Decays of sacks, and all the arrant stinks
That helped him round his rude aesthetic out.
He savored rankness like a sensualist.
He marked the marshy ground the dock,
The crawling railroad spur, the rotten fence,
Curriculum for the marvelous sophomore.
It purified. It made him he never see how much
Of what he saw he never saw at all. (CP 36)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을 그는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한다. “인간이 그의 토양에 대한 지성”이라는 거만한 태도가 “그의 토양이 인간의 지성”이라는 실재에 중점을 두는 논조로 바뀌었다. 평범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류의 삶”(the sort of life that millions of people live, L 294)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스티븐스는 “보통의 생활”이 “중심의 생활”이라고 진술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의 합일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티븐스는 상상력과 실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논한다.

세계에 대한 상상 혹은 그와 관련된 우리의 상상은 세상을 그토록 완전히 변모시켰기 때문에 뒤돌아 볼 때 그것은 진정 땅 끝이었다. 그러나 일단 변형이 생겨난 후 실재에 대한 전형적인 향수를 가진 상상력은 예전으로 돌아가 세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먼 땅 끝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정체성을 변하게 하고 친숙한 지성을 거부한 그 어떤 것이었다.

Our imagination of or concerning the world so completely transformed it that, looking back at it, it was a true land's end.

But the transformation having been effected, the imagination with its typical nostalgia for reality tried to go back to recover the world. It was not so much a remote land's end as something that changed its identity, denied its familiar intelligence. (*L 364*)

정체성을 변화케 하고 기존의 고정된 틀을 거부하면서 부단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상상력을 우리가 실제 속에서 끊임없이 지니고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우리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제와 상상력의 조화로운 역할 관계에서 상상력이 없는 실재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실재가 없는 상상력은 공상(fancy)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력과 실제의 조화로운 관계를 견지하는 크리스핀이 “인간이 그의 토양에 대한 지성이다”라는 명제에서 “그의 토양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그는 “새로운 지성”과 “단일한 대조”를 제안하기 시작한다.

비의 원주민들은 우기의 사람들이다
 비록 그들이 찬란하고, 하늘빛 호수들을 색칠하지만,
 4월의 언덕은 회고 핑크 숲으로 우거졌다
 그들의 하늘빛은 구름의 가장자리를 물들이고
 회고, 분홍빛은 개암나무를 지닌 밝은 물을 물들인다.

The natives of the rain are rainy men.
 Although they paint effulgent, azure lakes,
 And April hillsides wooded white and pink,
 Their azure has a cloudy edge, their white
 And pink, the water bright that dogwood bears. (*CP 37*)

비가 내리는 곳의 원주민들은 그 비에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우기의 사람”이다. 삶의 바탕과 본질은 비가 내리는 그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스티븐스에게 “삶은 장소의 문제이기”(life is an affair of places, *OP* 158)때문이다. 예술가는 자기가 사는 본래의 거주지에 충실해야 한다. 인간의 본질은 그의 세계의 세부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가 소나무 숲 사이에서 산다면, 그는 “소나무-대변인”(pine-spokesman) 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인간으로서 그의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표출하여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할 야심 찬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그는 “순수하고 능력 있는 은둔자로, / 그 땅에서 살았다”(as hermit, pure and capable, / dwelt in the land, *CP* 40). 그는 더 이상 임무를 띤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크리스핀은 땅에서 기거했고 거기서 살면서
그의 실제 눈 속에 있는 사물들로
서서히 퇴각하여 대륙에서 미끄러졌다.

Crispin dwelt in the land and dwelling there
Slid from his continent by slow recess
To things within his actual eye... (*CP* 40)

지금까지 그는 대륙에 그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땅에 살면서 그 환경에 대한 수용으로 태도를 바꾼다. 이것이 그가 경험하는 최후의 주요 변화이다(Penso 79). 크리스핀은 활기 있고 영원한 미학을 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멈추었다. 그의 상상력은 다른 것들에 의미를 부과하기를 멈추었고 오직 그는 “그의 실제 눈 속에 있는 사물들”을 본다.

그는 처음, 현실주의자로서, 인정했다
아침의 대륙을 사냥하는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자두 앞에 잠시 멈추어
만족하고서 여전히 현실주의자가 되리라는 것을.

He first, as realist, admitted that

Whoever hunts a martinal continent
 May, after all, stop short before a plum
 And be content and still be realist. (CP 40)

이제 크리스핀은 현실주의자가 되어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아침의 대륙”(matinal continent), 즉 순연한 유럽식 전통(Peterson 127)보다는 즉각적인 경험을 하는 실체로 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두”라는 실체 앞에서 조화롭게 살 것을 생각한다. “자두”는 그가 기존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성을 찾아 탐구했던 그 자신의 지성이다(Bates 119).

마침내 크리스핀은 가정을 꾸리는 결혼 생활에 정착함으로써 긴 여행의 중지부를 찍는다. 일상으로 돌아온 크리스핀은 “이점에서 그는 삶을 직시할 수 있으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더 현명해지는”(At this point he can face life squarely; He marries, begets children, and grows wiser, Pearce 387)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 이미지는 스티븐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제임스(William James)는 경험의 신비스러운 화해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면에서 인간 삶의 중요성은 부모의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자식에 있다; 그 어느 하나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인생의 의미는 발전과 또 한 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실재와 이상적인 신기함과 의 이상아릇한 통합처럼 보이는데 있는 것 같다.

The significance of a human life for communicable and publicly recognizable purposes is thus the offspring of a marriage of two different parents; either of whom alone is barren... significance in life does seem to be its character of progress, or that strange union of reality with ideal novelty which continues from one moment to another to be present.
 (294)

크리스핀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은 개인이 공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므로 이것은 개인이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가정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다. 그리고 가족의 활동과 대화의 은밀한 리듬을 알고 있고 친숙한 것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것을 느끼는 곳”(Home is the place where one understands the romantic, knows the secret rhythms of family activity and communication, and feels the fulfillment of the presence of familiar objects, Pack 62)이다. 결혼 이미지는 스티븐스에게 상반된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일상사의 평범함 속으로 크리스핀은 “현재”에 정착한다. 그래서 그는 “사실주의자에게 존재하는 것은 존재해야 하는 것”(For realist, what is is what should be, CP 41)이라는 생각에서 “깡디드처럼, / 소작농이면서 일에 진득하지 못한 사람”(Like Candid, / Yeoman and grub, CP 42)으로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

Ⅲ. 가정이라는 공간

이상과 같이 살펴본 「희극인」은 벤들러(Helen Vendler)가 말하듯이, “화려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것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몰입하는 저급한 시인”(a ribald poet of boisterous devotion to the gaudy, the gusty, and the burly)이 시도한 실패작도 아니며, “실재 세계의 진정한 밀도를 말로 흉내 내어 재현한”(verbal mimetic reproduction... of the actual density of the physical world, 52) 시도 아니다. 이 시는 가정과 가족에게 돌아오는 과정과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로 돌아온 후에도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의 융화를 모색하는 크리스핀의 이야기다. 크리스핀이라는 한 사람이 결국에 아버지라는 한 가장으로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만족감으로 끝나는(Dickie 119) 이 작품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신화적인 세계의 발견이 아니라, 낭만주의의 전통적인 탐색의 형식을 빌어 한 개인과 그가 살아가는 공간인 실재와의 조화를 이룬 일종의 사랑의 시라고 볼 수 있다.

주인공 크리스핀이 여행을 통하여 깨달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가 정착하는 땅이라는 공간과의 조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와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는 “잃어버린 땅”과 “새로운 지성”을 찾아서 여행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스티븐스는 “중심이 되는 인물은 우리 모두처럼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모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적인”(L 778) 사람이라고 평범한 삶을 긍정하는 말을 한다. 크리스핀은 여행에서 자기의 새롭게 변모된 자아를 발견하고 거듭 태어난다. 그의 여행은 그가 동경했던 캐롤라이나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것으로 마친다. 그는 이발사, 은둔자, 철학자, 시인 등 여러 가지의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묘사된 마지막 부분이다. 가정은 우리가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과 활동과 대화가 따뜻하게 있는 것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장소와 통합을 이루어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룩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계 그 자체”(OP 167)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 용 문 헌

- Bates, Milton J. *Wallace Stevens: A Mythology of Self*. Berkeley and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5.
- Cook, Eleanor. *Poetry, Word-Play, and Word-War in Wallace Stevens*. Princeton UP. 1988.
- Dickie, Margaret. *Lyric Contingencies: Emily Dickinson and Wallace Steven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1.
- James, William. *Talks to Teachers on Psychology: and to Students on Some of Life's Ideals*. New York: Henry Holf Co. 1912.
- Morse, Samuel F. *Wallace Stevens: Poetry as Life*. New York: Pegasus. 1970.
- O'Connor, William Van. *The Shaping Spirit: A Study of Wallace Stevens*. New York: Russell & Russell. 1950
- Pack, Robert. *Wallace Stevens: An Approach to His Poetry and Thought*. New York: Gordian Press. 1968.
- Pearce, Roy Harvey.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rinceton, NJ: Princeton UP. 1961.
- Penso, Kia. *Wallace Stevens, Harmonium, and The Whole Harmonium*. London: Associated UP. 1976.
- Peterson, Margaret. *Wallace Stevens and the Idealist Tradition*. Ann Arbor, MI: UMI Research P. 1983.
- Richardson, John. *Wallace Stevens: The Late Years 1923-1955*.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88.
- Riddel, Joseph N. *The Clairvoyant Eye: The Poetry and Poetics of Wallace Steven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65.
- Sharpe, Tony. *Wallace Stevens: A Literary Life*.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Sukenick, Ronald. *Wallace Stevens: Musing the Obscure*. New York: New

York UP. 1967.

Stevens, Wallace. *The Collected Poems of Wallace Stevens*. London and Boston: Faber and Faber. 1984.

_____. *Letters of Wallace Stevens*. Ed. Holly Stevens. New York: Alfred A. Knopf. 1972.

_____. *The Necessary Angel: Essays on Reality and Imagin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5.

_____. *Opus Posthumous*. Ed. Samuel French Morse. New York: Random House. 1982.

Vendler, Helen. *On Extended Wings: Wallace Stevens' Longer Poems*. Cambridge: Harvard UP. 1969.

Abstract

Aesthetics of Place: Wallace Stevens's "The Comedian as
the Letter C"

Youngil Kim (Kyungin Women's College)

Wallace Stevens's poetry is the kind of poems of the act of the mind and the supreme fiction. He creates a supreme fiction as a replacement for god. He sees the world as an ever-changing reality and he tries to create it through his imagination. Even though his endeavor is not perfect, it is worth being recognized by u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place and the unity of person and place. Crispin, the protagonist, who lives in this world, departs to find his new intelligence. In this case intelligence means a fixed myth which cannot see reality as things as they are, so this fixed myth should be deleted. Stevens says the poet must resist the old intelligence almost successfully. Crispin experiences many things as a realist, romanticist and fatalist. His journey ends when he gets married and has four daughters. In the long run, he unifies with the place in which he lives.

Key words : Place, Reality, Imagination, Supreme Fiction, Intelligence

공간, 리얼리티, 상상력, 최상의 허구, 지성

논문접수일: 2008. 4. 25

심사완료일: 2008. 5. 20

게재확정일: 2008. 5. 30